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탈출 20,1-17 <또는 20,1-3,7-8,12-17>
[화답송] 시편 19(18),8,9,10,11(© 요한 6,68c)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돌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제 2독서] 1코린 1,22-25
[복음 환호송] 요한 3,16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요한 2,13-25

성가	8시 미사	입당 115	봉헌 217	성체 153 167	파견 121
	11시 미사	입당 115	봉헌 217	성체 153 167	파견 12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 3주일(3월 8일)		사순 제 4주일(3월 15일)		사순 제 5주일(3월 22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승원 루카	2구역:조성덕 레지나	정애리 스텔라	3구역:김미숙 딸가리다	정일환 프란치스코	4구역:이자영 엘리사벳
제 1 독서	최환준 베네딕토	2구역:심태규 미카엘	정일환 프란치스코	3구역:최윤기 유스티노	채성일 토마스	4구역:김민규 바오로
제 2 독서	최수영 베네딕타	2구역:심승화 헬레나	정영희 글라라	3구역:이혜경 레아	정애리 스텔라	4구역:윤윤선 루시아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복음에서 몇 번 접하기 힘든 무서운(?) -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 그리고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쫓으시고, 환전상의 돈을 쏟고 탁자들을 엮으신 -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토록 화를 내고 계신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왜곡된 성전의 모습과 진정한 성전 의미를 되돌아보게끔 만드신다.

성전이란? 바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곳이자, 그분의 뜻을 찾는 곳이다. 하지만 당시 성전이란 외적인 허례와 그릇된 신심의 장소로만 남아 있었기에,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찾고자 하는 본연의 모습과는 멀게만 보인다.

이러한 불의함과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다시 성전의 참된 의미를 확인시키시고자 또 다른 말씀을 더 하신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 2, 9)

성전을 허물면 당신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신 예수님(요한 8, 28 참조)이야 말로, 온 생애에 걸쳐 늘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거룩한 자이자, 하느님의 뜻을 찾는 자이며, 당신의 말과 행적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신 가장 크고 완전한 성전이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당신과 같은 삶의 길을 제안하신다. 즉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희생제물, 성전 세 등과 같은 외적 허례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며, 그분의 뜻을 찾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다.(호세 6, 6 참조)

바로 사도 역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 (1코린 6, 19)이라 칭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나약함은 아버지의 집을 내 욕심으로 채우는 나만의 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의 채찍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이기심과 나약함, 즉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방해물을 쳐 없애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오롯이 모시며, 그분의 참된 성전이 되리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환 요셉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삶이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희망이 싹튼다.
이런 희망을 통해 설명하기 어려운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자란다.

글_파리의 녀마주이 신부 아베 피에르(Abbe Pierre)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생명의 말씀

거룩한 열정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면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던 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서운 모습으로 돌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앞뜰에서는 희생 제물로 쓸 동물들을 가져다 놓고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위한 환전상들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돌려 얹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요한 2,16)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거친’ 행동은 우발적인 화풀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극적인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경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보다는 돈에 마음이 쏠려서 성전과 희생 제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1티모 6,5)을 나무라시면서, 그들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서 일종의 ‘쇼크 요법’ 을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며 죽일 궁리까지 합니다. (루카 19, 47-48 참조) 예수님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루카16,13)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돈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느님을 믿으려면 무조건 가난뱅이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돈을 숭배하면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며 하느님마저도 제쳐놓는 오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하느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영이 거하시고,

따라서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1코린3,16 참조) 우리의 내면에서 돈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도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탐욕이라는 불순물을 태워버려 깨끗한 마음과 굳건한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가 십계명에 따라(제1독서)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제2독서) 그분의 뒤를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니다.

과거 한국의 순교자들은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세지는 물욕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롯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손희송 신부
서울 대교구 사목국장

엔터리 묵주기도

말씀의 향기

한동안 묵주기도를 꽤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스스로 뿌듯해 하고 있던 때에, 어느 신부님의 묵주기도에 대한 말씀은 저를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해온 묵주기도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각 신비에 대한 묵상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비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되지 않았습니다. 묵상을 위한 책을 읽어가며 도움을 청했지만,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도무지 진척이 없자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신비를 매일 반복해서 묵상한단 말인가?’ 고통의 신비 1단을 시작하면 “피땀 흘리시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라는 정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간신히 2단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에서 맴돌다가 다른 생각이 슬며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다른 데로 빠져드는데, 이것을 매일 반복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같은 것을 반복하는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 연습하던 생각을 하면 그렇게 싫던 연습곡을 수없이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반복의 따분함을 이겨낸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 음악의 맛을 느끼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주자가 되었다고 반복 연습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연주자가 연주를 앞두고 같은 곡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렇게 반복된 연습으로 무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도 연주 후에는 아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번 연주했다고 같은 곡을 다시 연주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곡을 몇 년 후에 다시 연주하게 되면 그는 또 다시 같은 곳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럴수록 새로운 맛을 느끼며 빠져들게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러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반복 연습이 따분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아닌 저도 한 작품을 공부하게 되면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악보를 들여다봅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이 반복을 인내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비 묵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신비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위해 성경의 해당 부분들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신비에 대한 저의 열정을 키우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최소한 고통의 신비만큼은 묵주 앞에 땀이 묻을 정도로 묵상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과 수난, 인내는 라틴어에서 같은 어원을 갖는다고 합니다.

허영한 요셉
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교수

성경산책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환전상과 장사꾼

오늘 복음을 보면 늘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도 버럭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노에 가득 차 거친 행동까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소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2, 13-25/탈출 30, 11-16)

지금 생각하면 성전 안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존재하는 것은 참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가 아닌 유대인 화폐인 세켈만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세를 유대인 화폐로 받은 것은, 로마 화폐에 로마 황제의 모습이 있어 성전세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례자들은 성전 가까이에서 제물을 구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소와 양, 비둘기 등 제물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패의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전에서 이뤄지는 상업 행위는 성전 고위층 허가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 시장은 독점권을 가지고 권력과 관련된 검은 거래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희생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 집이자 기도의 집인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 행태에 분개해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21, 12-13/마르 11, 15-17/루카19, 45-48)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장사꾼들을 내쫓는가? 만약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면 표징을 보여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의 몸이 십자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허영엽 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의 집을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요한2,1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2,19-21))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3월 8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신마태오(현규)	윤사비나
	연	권데레사	윤사비나
	연	조요셉	조마리아
	연	홍말가리다(명선)	홍토마스아퀴나스
	연	박마리아(복임)	홍토마스아퀴나스
	연	이스테파노(상준)	뜨락회
	연	이스테파노(상준)	익명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유데레사	3구역일동
	생	서데레사	3구역일동
	생	심데레사	3구역일동
	생	조엘리사벳	3구역일동
	생	김요셉(동규)영세	육아오스딩/아가다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김카타리나(이나)	전수산나
	생	송아가다(분학)	전수산나
	생	황안나(정희)	전수산나
3월 10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김데레사
3월 11일 수	연	신마태오(현규)	박헬레나
	생	이데이빗(지현)생일	김아네스(순이)
3월 13일 금	생	김수산나(현숙)	김엘리사벳
3월 14일 토	연	조보나벤투라	김카타리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91	194	18	311
헌 금	\$489	\$1,269	\$31	\$1,789

< 교무금 > \$4,880

김영순(2) 정경희(2-3) 유춘성(2) 유경돈(2)
 강수영(2) 김상실(3-4) 김휘(1-2) 조상희(3)
 전문자(3) 전숙희(3) 임윤택(3) 김종란(1-5)
 김관숙(3) 채용분(3) 이정연(3) 강성순(1-2)
 허미카엘(3) 염명련(1-2) 황국명(1-6) 이병열(3)
 황현숙(1-2) 소명환(3-4) 강신호(1-2) 윤순의(1-2)
 허동원(3) 천종욱(3) 이은자(3) 이성재(1-2)
 김영희(3) 최몽렬(3) 이건용(3) 김관수(1-2)

< 성소후원금 > \$80

임윤택(3) 채용분(3) 소명환(3-4) 이은자(3)

< Bishop's Appeal >

조상희(1-12)

< 감사헌금 >

박영실 \$100 문아영 \$100

< 부활초/꽃봉헌 >

김영순 \$50

~~~~ 오늘 간식은 김정옥 그라시아/신영아 세실리아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2차 헌금  
 3월 15일 : Catholic Relief Services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합동판공성사 : 3월 27일(금) 저녁 미사 후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친교실과 성당입구에서 Rice Bowl을 가져가십시오.  
 사순시기 동안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저축하셨다가 사순시기 끝나는 날 봉헌해 주십시오.  
 모아진 금액은 교구로 보내져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 견진대상자 신청  
 4월 26일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견진대상자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 견진교리 안내  
 일시 : 3월 15일, 3월 22일  
 4월 12일, 4월 19일 오후 1시 ~ 2시  
 장소 : 교육관 106호실  
 지도 : 조마오로 수녀님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화요일/문의 510-847-3014  
 \* 대건회 : 3월 15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성모회 총회  
 3월 15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45세 ~ 65세의 모든 자매님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3월 22일 점심식사 후 성당

◆ 전례 성가대 새로운 단원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연습시간 : 교중미사 전(오전 10:00 ~ 10:50)  
 교중미사 후 1시간  
 \* 성가대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보이스 클리닉도 있습니다.

◆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일일피정  
 일시 : 3월 14일(토) 아침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Mercy Center(300 Adeline Dr. Burlingame)  
 주제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루카 11,2)  
 강사 : 한승주 스테파노 신부님  
 참가비 : \$15.00(Pay to the order of KSCNC)  
 준비물 : 성경, 묵주, 필기도구  
 문의 : 영명련 파트리샤 503-369-2945

◆ 북가주 26차 ME 첫주말 초대  
 일시 : 2015년 4월 10일 - 4월 12일  
 장소 : Vallombrosa Retreat Center, Menlo Park  
 참가비 : 부부당 \$ 300.00  
 연락처 : 한치용 요셉 415-810-3175  
 한현자 헬레나 925-285-2038

◆ Brown Bag 봉사활동에 도움 주신 분  
 한재구 즈카리아 \$50      장찬호 안드레아 \$100  
 배영옥 데레사 \$1,000

◆ 성물방 Sale  
 사순시기 동안 도서/성물을 20% Sale 합니다.(초 제외)

◆ 연도 안내  
 고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의 1주기 연도가 3월 19일(목) 저녁 미사 후 있습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세라피나(3/12) : 김수정

| 주일학교 소식                       |
|-------------------------------|
| - Sunday School 11:00 ~ 12:15 |
| - 영어미사 : 오후 12시 30분           |

| 안국학교 소식         |
|-----------------|
| - 3월 14일 : 미술특강 |